

불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머언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
넌 —
진정 神의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면 삼라만상을 다스리러 내려온
요물인가
괴물같은 붉은 눈알을 부라리며
지옥에서나 볼 듯
피에 굶주린 악귀의 혀를
날름거리며 온통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상의 낙원을
뒤집어 놓았다.
너로 하여금 온갖 세상의 인간들이
맛있는 요리를 풍겨
인간의 마음을 욕구에 치솟게 하고
냉혈적인 인간의 마음을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사롭게 했다
이글거리는 태양의 불처럼
스스럼없이 누구에게나 접근하는
넌
수억년의 지구역사와 함께
오늘도
희노애락을 한몸에 담아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인가
아! —
너없이 살 수 없는
빈약한 者들의 슬픔이 외롭구나.